

조선왕조실록 이안 사업 최종보고회

무주군, 이안 과정 영상물·모형 등으로 사실감 있게 보존 나서... 무주만의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총력

무주군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록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 이안 과정을 사실감 있게 보존할 수 있는 작업에 착수, 관심을 끌고 있다.

무주군은 역사속에 담겨 있는 묘향산 사고본 적상산사고 이안 과정을 반차도·디오라마·영상 제작 등을 통해 무주만의 고유한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의 기반을 만드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이에 군은 1일 오후 최북미술관 1층에서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이안 사업과 관련해 김희옥 부군수를 비롯해 맹감상 무주문화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최종보고회를 통해 운영사 대표는 "서울여자대학교 황치석 초빙교수의 반차도를 바탕으로 최신 기법을 활용하여 디오라마 145개를 제작했으며, 그래픽 패널과 QR코드를 이용한 전시 해설과 관람객들의 흥미를 더할 수 있는 AR 포토존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안 행렬 참여자들의 복식은 2020년 무주문화원에서 실시한 조선왕조실록 묘향산 사고본 이안재현 학술용역을 근거로 사실감 있게 표현하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군은 무주군 무주읍에 위치한 최북미술관 1층에 역사전시관을 2021년 6월 사업에 착수해 12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무주군은 1일 오후 최북미술관 1층에서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이안 사업과 관련해 김희옥 부군수를 비롯해 맹감상 무주문화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군이 이달중 역사전시장을 개방할 경우 조선왕조실록 묘향산 사고본 적상산사고 이안 과정을 영상물과 모형 등으로 사실감 있게 조선시대 역사의 과정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선왕조실록 이안 행렬을 반차도(그림)나 디오라마(모형)로 제작해 역사전시장을 조성한 곳은 무주가 유일하다.

김희옥 부군수는 "최북미술관 1층에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이안 과정을 그린 반차도

와 디오라마, 그리고 영상을 볼 수 있어 무주군민들에게는 자긍심과 보람을, 청소년들에게는 역사교육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무주군의 관광역사 자원으로 지속 개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조선왕조실록을 이안·보존했던 역사적 사실을 무주군을 방문해야만 볼 수 있어 무주군이 조선시대 역사의 산실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문화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도서 기획전시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신현수)과 공동으로 도서 기획 전시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 그림책 도서관'에서 열리는 두 번째 기획 전시다. 이팝나무 그림책 도서관은 전주시 그림책 특화 도서관으로 지정, 이번 전시를 위해 세계 각국의 그림책 작가들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전주문화재단과 출판진흥원은 케이북(K-Book)의 위상을 지역민들에게 선보이고 공공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더 많은 문화적 가치로 환원하고자 이번 전시를 함께 기획했다. 재단은 전시 환경조성과 지역 예술인 협업을, 출판진흥원은 그림책 전시 기획과 출판사·작가 협조 지원 등을 준비했다.

전시를 통해 우리 그림책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세계 각국의 문화가 반영된 번역본과 출판 문화를 경험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공익의 목표를 위해 공공기관 간의 의미 있는 협업을 추진하게 돼 기쁘다"며 "특히 국내 도서들이 해외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도록 수출 활로를 개척하고 있는 출



관진흥원과의 협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팝나무 그림책 도서관이 특화 도서관으로써의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지속가능한 소비, ESG 토크 콘서트' 개최

전북도와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지속가능한 소비, ESG 토크 콘서트'가 9일 전주시 새활용센터 다시봄에서 열린다.

행사는 관광 분야 청년네트워크를 비롯해 기관과 기업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해 문화관광산업 ESG 정책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온라인 사전 질문 참여 이벤트'를 통해 ESG를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도민 소통형 토크콘서트로 진행 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전 질문 참여 이벤트는 재단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벤트 안내 게시글을 통해 참여 할 수 있으며, 게시글에 ESG 실천을 위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참여자 50명에게 추첨을 통해 '제로웨이스트 키트'를 증정한다. 현장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이달 7일까지 네이버폼 링크 접속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 참가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며, 행사는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이기전 재단 대표이사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ESG 정책 마련과 재단 관광진흥본부 ESG 경영 결의식에 따라 경영, 문화까지 ESG 경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김원호 학생, 계명문학상 당선

시 부문 '아기 엄마' 출품해 선정

우석대학교 김원호(식품생명공학과 2년) 학생이 제41회 계명문학상 시 부문에 당선됐다. 당선작은 '아기 엄마'다.



제41회 계명문학상 작품 현상 공모는 시·단편소설·극문학·장르문학 등 총 4개 부문에 대해 진행, 단편소설 부문을 제외한 3개 부문에 당선작이 선정됐다. 단편소설 부문에서는 총 두 편이 공동 당선작으로 뽑혔다.

이번 공모전에서 김원호 학생은 자신에게 주어질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의욕

을 임신과 출산에 비유한 시 '아기 엄마'를 출품, 계명문학상 최고봉에 올랐다.

시 부문 심사위원들은 "김원호 학생의 '아기 엄마'는 분석 이전에 이미 읽는 이를 사로잡는 강렬함이 있다"며 "표현하고 있는 문장들이 표현되고 있는 감정과 빈틈 없이 밀착돼 있다는 느낌이다"고 심사평을 남겼다.

김원호 학생은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은 더 깊이 들어가 봄으로써 익숙해지는 법이다"며 "시와 제가 항상 맞닿아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준 정현우 선생님과, 제게 처음 글쓰기의 재미를 가르쳐 준 최정숙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계명대 배우어 신관 덕영실에서 열렸다.

/장은성 기자

태권도원 상징 조형물 공모전 시상식

태권도진흥재단, 최우수 후보작 3점 등 총 8점 시상... 12월 중 최종 디자인 선정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1일 '태권도원 상징 조형물 설치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 후보작 등을 발표하며 태권도원 운영센터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태권도원 상징 조형물'은 국기 태권도를 상징하면서 태권도원을 대표하는 조형물로 태권도원 내에 설치된다.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은 태권도원 상징 조형물의 의미를 담아 태권도 상징성과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 태권도원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독창적 디자인 등을 주제로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총 30점이 접수됐다. 조형물의 예술성과 적합성,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를 거쳐 최우수 후보작 3점과 장려상 5점 등 8점의 수상작에 대해 시상식을 진행했다.

최우수 후보작 3점은 태권도 돌려차기 동작과 품새의 선을 코르텐강을 소재로 표현한 '오재환 씨의 꿈'과 태권도 발차기의 빠른 속도와 회전을 곡선의 띠로 표현한 '김기덕 씨의 태권도의 꽃', 태권도 품새 모양을 더한 한반도 디



자인을 표현한 '김상국 씨의 태권도의 시작, 한반도',이다.

최우수 후보작 3점에 대해 국민 선호도 조사를 12월 중 진행하며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원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민 선호도 조사와 함께 디자인, 건축, 태권도 등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통해 최종 디자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최종 디자인을 활용해 내년 9월까지 태권도원 상징 조형물 설치를 완료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경례 개인전 gallery숍서 개최

gallery숍 전시공간지원기회 '공감-공유'에서 6~18일까지 '호하·호하·호하'라는 전시명으로 이경례 개인전이 열린다.

gallery숍의 '공감-공유'는 전시공간지원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작가의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이는 개성 있는 작가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려는 gallery숍의 의지다.

작가에 따르면 호·호~호 후운 날이면 호~떡, 호~빵 생각이 난다. 하얀 입김을 뿜

으며 호~호호 추운 날에 따끈한 호떡·호빵 사먹던 옛날이 그림다. 호·호·호~입안에 군침이 돌며 기분이 좋아진다. 호하·호하~가 의미하는 바와 음을 또한 참 좋다. '호하·호하·호하' 전시 타이틀은 본인의 작품 의도를 잘 내포하고 있다. 지난 몇 해 동안 부귀영화를 주제로 좋은 기운을 주는 식물이나 꽃, 문자를 풀어내며 하루하루를 걸어왔다.

이경례 작가는 "'호하·호하·호하'라는 워드 코르나 시기에 서로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염원하며, 소중한 사람들과 호흡하는 시간을 기다려 본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제6회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2021년 12월 10일(금) 오후 5시~

전주한옥마을 특설무대(경기전 앞)

주최: 전주매일신문
주관: (사)전북문화진흥원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